

무용예술축제로의 발전방안 사례연구 : 보훈댄스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유영수*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

초록 본 연구는 보훈댄스페스티벌의 성공적인 무용예술축제로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3년 연속 3억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서울세계무용축제와 서울무용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보훈댄스페스티벌의 사업 및 실적 보고서를 통해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축제의 목적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보훈댄스페스티벌은 단순 공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유한 목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훈'이라는 주제와 예술성을 결합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심포지엄 개최, 예술가와의 만남, 역사적 장소와 호국영령 추모 장소를 소개하는 전시회 등의 프로그램 다양화가 필요하다. 둘째, 홍보 방법의 구체화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온라인 SNS 홍보와 매체 보도에 주력하고 있으나,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 등 주요 고객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전략이 부족하다.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하여 행사장 주변 배너 설치, 홍보대사 위촉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축제 전, 중, 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예술 마케팅을 전개해야 한다. 셋째, 자원 조성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상업적 성격이 취약한 무용예술축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중요하므로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 기업과의 협력 및 기부금 유치, 할인 패키지 구성을 통한 매표 활성화 등 자원 조성의 다변화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보훈댄스페스티벌 및 유사 상황 축제의 발전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후속연구로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각 축제의 사례 연구를 통해 축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반적 및 개별적 자료가 축적되기를 바란다.

주요어 : 무용예술축제, 보훈댄스페스티벌, 축제 프로그램, SWOT 분석

I. 서론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에 의하면 여가활동이 삶의 필수적인 요건인지의 여부에 83.9%가 그렇다고 답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22). 이는 주 5일제의 시행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 여기게 되면서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게 된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의 형성으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대중들은 문화를 향유하려는 욕구가 상승하였고, 이에 편승하여 다양한 형태의 문화 예술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예술, 과학 등 다양한 장르가 접목되어 문화의 발현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것을 담아내는 문화예술의 형태도 다양해짐에 따라 문화의 총체적 결집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축제라 할 수 있다(공종빈, 2020).

축제는 일정기간동안 특별한 행사나 이벤트가 열리는 문화적인 현상으로 보통 특정한 주제나 목적을 가지고 개최된다. 그 중 음악, 무용, 연극 등 공연예술을 주제로 하는 축제를 공연예술축제라 한다. 축제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회적 결속이 강화되고, 구성원 간 상호작용과 이해를 증진시킨다. 또한 특정 문화의 전통과 가치를 이해하고 보존하며, 예술축제의 경우 창작자에게 창의성을 발휘하고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 이사장, puri97@hanmail.net

기도 한다. 더불어 지역 사회적 관점에서는 관광객이 축제를 통해 지역에 방문함으로써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관광산업을 발전시킨다. 이렇듯 축제가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다양한 축제가 광범위하게 개최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훈댄스페스티벌은 무용이라는 예술을 매개체로 대중들에게 호국·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자는 취지와 함께 출발하였다.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의 주최 및 주관으로 진행되는 보훈댄스페스티벌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애국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는 숭고한 정신이 미래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보훈'에 가치를 두고 개최된 무용예술축제이다. 또한 '보훈'의 가치와 함께 대중들이 '보훈'의 개념을 친근하게 접함으로써 사회 곳곳에 보훈의 가치가 뿌리내리고, 이를 통해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보훈댄스페스티벌 사업계획서, 2023).

2013년 「무담(舞談)-춤 이야기」라는 공연에서 출발한 보훈댄스페스티벌은 2019년 행사의 성격과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여 축제로 확대, 발전하였다. 보훈댄스페스티벌은 '호국, 보훈'이라는 독자적인 주제를 통해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공연예술축제로서 정착 여부는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첫째, 재원 조성이 불안정하며 둘째로, 서울시 축제 지원사업 운영결과보고서(2023)에 의하면 축제의 주제를 담아내지 못한 프로그램의 구성 등으로 축제의 목적성을 담보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연예술축제 중 무용예술축제를 중심으로 진행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안귀호(2002)는 서울공연예술제의 무용부문과 서울세계무용축제의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무용예술축제의 현황과 운영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프로그램 기획, 조직구성, 홍보방안, 재원조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은지(2009)는 무용예술의 발전을 위한 방법으로 축제의 형식을 들 수 있으므로, 무용예술축제를 살펴봄으로써 축제의 발전과 함께 무용예술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서울세계무용축제와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국제현대무용제, 부산국제무용제, 성남국제무용제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개선점과 효율적인 축제운영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최윤희(2014)는 서울세계무용축제와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 참여한 국내안무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네트워크 구조 분석을 통해 안무가들의 창작활동 성과에 대한 사회학적 시각을 무용계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배준용(2018)은 지역축제 및 공연예술축제의 성공요인을 조사하여 선행연구로 삼고, 국내의 무용전문축제인 서울공연예술제, 국제현대무용제, 서울세계무용축제, 천안흥타령 축제의 영역분석을 실시하여 무용전문축제의 활성화 방안 및 축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공종빈(2020)은 국내외의 공연예술축제 사례를 조사한 후, SCF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과 비교분석하였으며, SCF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의 긍정적 요인과 개선점 도출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문화관광축제나 공연예술축제에 대한 연구는 여러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무용예술축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다변화되어 일어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대표적인 무용예술축제로 언급한 서울세계무용축제와 40여년의 역사를 지닌 서울무용제를 살펴보고, 보훈댄스페스티벌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 도출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무용예술축제가 다양한 축제의 범주 중 공연예술축제의 일부이므로 공연예술축제의 당위성과 특징을 기초 개념으로 삼고, 보훈댄스페스티벌의 현황과 이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보훈댄스페스티벌이 성공적인 공연예술축제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논문, 학술보고서, 학술지 등을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진행하여 축제와 공연예술축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연구의 기초로 삼았다. 이후 보훈댄스페스티벌을 사례로 심층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명칭과 정체성을 확고히 한 2019년의 축제부터 2023년의 축제까지를 대상으로 하

여 사업계획서와 실적보고서, 서울시 축제지원사업 운영결과보고서를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SWOT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보훈댄스페스티벌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을 분석하고 SO, ST, WO, WT 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보훈댄스페스티벌이 국내 유일한 보훈 관련 무용예술축제로서의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I. 공연예술축제

축제란 ‘빌다, 축하하다’라는 의미의 축(祝)과 ‘제사’ 제(祭)의 합성어로 두 단어의 의미가 포괄적으로 표현되는 문화현상이다. 영어로는 페스티벌(festival)이라 칭하며, 라틴어로 성일(聖日)을 뜻하는 festival의 의미에서 유추해 볼 때 종교의례에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축제는 오락성과 종교성이 함축되어 있으며, 예술적 요소가 포함된 제의를 일컫는다.

과거 우리의 제천의례에서도 농공시 하늘에 제사를 지낸 후 사람들이 모여 음주가무를 즐기는 것이 관례였다. 단순히 음주가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에 축제가 종교행사였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산업화와 세속주의에 의해 종교적인 제의의 의미가 줄어들고 유희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한승연, 2010).

1. 공연예술축제

공연예술축제의 기원을 서양에서 찾아보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디오니소스 축제를 언급할 수 있다.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기리며 종교적인 의식과 함께 주신찬가 경연대회, 연극 퍼레이드, 비극과 희극 경연대회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고, 이 때 발표된 작품들은 다른 지역으로 순회공연을 가기도 했다. 이를 통해 디오니소스 축제가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행사가 아니라 연극의 기원, 공연예술축제의 원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란희, 2014).

현대의 공연예술축제는 이러한 기원에서 관람자와 실행자가 분리되어 감상과 연희가 함께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일정기간동안 전문적인 공연예술 작품을 모아 보여주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그 외 축제적 요소들과 부대 프로그램이 주요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구성을 보인다. 공연예술축제는 연극, 무용, 음악, 뮤지컬 등 단일 장르로 이루어지는 축제가 있는 반면 두 가지 이상의 장르를 포함하는 복합장르 공연예술축제도 있다. 공연예술축제는 공연이라는 장르적 특성상 현장성과 일회성을 가져 다른 예술축제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현장성이란 무대와 객석이라는 공간을 통해 공연이 완성된다는 특성으로 공간의 특성과 조건에 따라 공연의 완성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며, 일회성은 공연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만 존재하여 그 시간이 지나면 체험도 보존도 할 수 없음을 말한다(윤성진, 2009).

또한 운영적 측면에서 타 축제들과 차별성을 가지는데 첫째로 예술이라는 전문성을 가진다는 점, 둘째로 예산 문제에 있어 자생력이 약하다는 점, 셋째로 축제의 수가 단기간에 급증하여 차별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할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축제의 기본적 속성인 자율성 침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이란희, 2014).

2. 국내 무용예술축제의 대표적인 사례

현재 다양한 공연예술축제가 진행 되고 있으나 공연예술축제 중 무용예술축제를 사례로 삼았으며,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에서 3억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서울시 내에서 진행하고, 10회 이상 진행된 축제를 선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

서울세계무용축제는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주최로 매년 하반기에 약 3주간의 기간 동안 진행되는 행사이다. 제1회 행사는 1998년 제13차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 총회의 진행과 함께 개최되었다. '스며들어 서로 만나기'를 주제로 열린 제1회 행사는 해외 7개국의 무용단과 국내의 무용단 다수가 참가하여 건국 이래 최대의 무용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세계무용축제는 2023년 제26회를 맞이한 현재까지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 관객들에게 선보일 기회가 없었던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을 초청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재능 있는 무용가를 세계에 소개하고 세계 정상급 안무가를 초청하여 국내의 예술가와 관객들에게 무용축제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CID-UNESCO)는 1973년 출범한 기구로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유네스코 산하의 유일한 국제무용기구로 세계 180여개의 회원국을 보유해 각국의 수준 높은 무용인과 예술 단체를 소개하며 국제교류 창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3년 문화예술전문단체로 지정된 한국 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등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각국 정부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문화교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세계무용축제는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가 주최하고 서울세계무용축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또한 예술 감독제를 시행하여 전체적인 총괄은 예술 감독이 맡고 있으며, 사무국에서 국제 교류팀, 국내 초청공연 관련팀, 홍보, 부대행사, 티켓 등 업무를 분담하여 실질적인 운영과 진행을 맡고 있다.

서울세계무용축제는 서울의 주요 공연장에서 진행되는데 최근 4년간의 공연개요는 다음<표 1>과 같다.

표 1. 2020-2023 서울세계무용축제 개요도

연도	기간	장소	주최/주관	후원
2020	11.06.-11.22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 (촬영 후 온라인 상영)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제23회 서울세계무용축제 조직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시공사 윤슬의 아침 페리에
2021	10.16.-11.14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서강대 메리홀 대극장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문화비축기지 신촌문화발전소 온라인공연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제24회 서울세계무용축제 조직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주한 벨기에대사관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 주한 퀘벡대사관 더치퍼포밍아트
2022	09.14.-10.02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서강대 메리홀 대극장 서울남산국악당 문화비축기지 포스트극장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제25회 서울세계무용축제 조직위원회	서울특별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주한 덴마크대사관 주한 네덜란드대사관 주한 포르투갈대사관 ISAC, Camões-협력 및 언어 연구소 FondsPodiumkunsten Statens Kunstfond

연도	기간	장소	주최/주관	후원
2023	09.01.-09.17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퀴드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서울 남산국악당 연희예술극장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제26회 서울세계무용축제 조직위원회	서울특별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한 이탈리아문화원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주한 호주대사관 재팬파운데이션 서울문화센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서울세계무용축제는 개최 시기가 9월, 10월, 11월 등 일관적이지 않고 다소 유동적이다. 또한 개최장소도 서울 시내에서 진행하였으나 각 공연장소가 일정 거리 이상의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 이는 축제 기간이 장기간이며 공연 작품의 특성에 따라 공연장을 선택하여 배치한 결과로 보인다. 이 축제의 프로그램은 크게 국내외 예술단체의 초청공연, 합작공연, 부대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전야제만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행사는 서울시내 극장에서 촬영 후 네이버TV, 유튜브, 서울세계무용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송출하는 온라인 상영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해외 팀은 필름 형태로 6개국의 작품을 상영하였고, 국내는 총 29개 무용단이 참여하였으며, 부대행사로는 포럼, 예술가와의 대화,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2021년에는 15개국 80개 무용단이 참여하여 총 68편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부대행사는 2020년과 동일하게 포럼, 예술가의 대화, 워크숍으로 이루어졌다. 2021년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병행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2022년에는 11개국 50개 무용단이 참여하여 총 50편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부대행사의 경우 포럼, 예술가의 대화, 워크숍, 참여자들 간의 교류행사인「HOTPOT×PAMS Night」등이 진행되었다. 2023년에는 9개국의 23개 무용단이 참여하여 총 26편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부대행사의 경우 공연을 포함하여 국제학술포럼, 안무가 워크숍, 예술가 교육용 워크숍 등 다채로운 행사로 이루어졌다. 이렇듯 다양한 부대행사는 관객들의 문화향유 폭을 넓히고 나아가 축제의 예술영역을 확장하였으며, 관람객들에게 무용 예술을 배우고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들 간의 교류와 지식 공유를 촉진하였다.

서울세계무용축제의 프로그램 구성에서 가장 큰 특징은 국가 간 합작공연, 공동작업의 예술작품 제작을 들 수 있다. 공동제작을 통해 나라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 대등한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점차 아시아권 프로젝트에서 중남미권, 유럽으로 범위를 넓혀감으로써 차원 높은 국제 문화교류의 성과를 이루었다.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관객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에게도 문화적 시야와 활동 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부키, 바라타나티엄 등 외국의 전통무용과 한국의 전통춤을 함께 소개하여 전통예술의 세계 진출을 위한 창구역할도 하고 있다.

표 2. 2020-2024 서울세계무용축제 지원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서울시 보조금	서울문화재단	합계
2020	200	230	430
2021	200	220	420
2022	420	-	420
2023	420	-	420
2024	378	-	378

(출처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https://opengov.seoul.go.kr/>,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support_list.do?cbldx=992&bcldx=120121&type=재구성)

〈표 2〉는 최근 5년간 서울세계무용축제의 지원금 수혜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서울특별시 대표공연예술제와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자부담금을 제외한 수입금액이 각각 4억 3천만 원, 4억 2천만 원이었다.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축제 지원사업이 서울시로 통합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울예술축제의 지원금으로 4억 2천만 원을 수혜 받았다. 2024년에도 서울특별시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사업에 선정되어 3억 7천 8백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축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세계무용축제는 세계 각국의 해외 기구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해외의 단체를 소개하는 것과 함께 국내 무용인들의 활동기반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지속적인 행사 개최를 통해 국제문화교류에 큰 목적을 두고 축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표 2〉와 같이 지자체 및 국공립 기관의 지원체계를 통해 축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서울무용제

서울무용제는 사단법인 대한무용협회의 주최로 매년 11월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1979년 한국문예진흥원에 의해「대한민국무용제」로 창설되었다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이 개최되는 시기에「문화예술축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1990년 무용제의 권한이 한국무용협회로 이관되면서「서울무용제」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2001년 서울연극제와 통합하여「서울공연예술제」로 변화를 겪게 되었으나 2004년 독자적으로 독립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최혜경, 2023).

사단법인 대한무용협회(구, 한국무용협회)는 1961년 초대 이사장 송범의 취임과 함께 시작하였다. 무용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무용가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현재까지 서울무용제를 비롯하여 젊은 안무자창작 공연, 경연대회, 전국무용제, 대한민국무용대상 등 무용제의 여러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서울무용제의 경우, 협회가 주최하고 운영위원회와 기획위원회로 구성된 서울무용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공연기획팀, 홍보 콘텐츠 개발팀, 대외협력팀, 인력개발팀, 경영지원팀으로 세분화된 사무국이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음 〈표 3〉은 서울무용제의 최근 4년간 공연개요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2020-2023 서울무용제 개요

연도	기간	장소	주최/주관	후원
2020	11.04.-11.20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사단법인 대한무용협회 서울무용제 조직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2021	11.05.-11.28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온라인 공연	사단법인 대한무용협회 서울무용제 조직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2022	10.27.-11.27 (본 행사 11.11-11.27)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상명아트센터 계당홀 대학로 예술가의 집	사단법인 대한무용협회 서울무용제 조직위원회	서울특별시
2023	09.09.-11.26 (본 행사 11.10-11.26)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서울어린이대공원 숲속의 무대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아고라	사단법인 대한무용협회 서울무용제 조직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무용제는 사전축제, 부대행사를 제외한 본 행사를 매년 11월에 일관성 있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진행하여 특정 시기에 동일한 공연장에서 개최되는 연례적 축제로 자리 잡았다.

서울무용제의 프로그램은 개·폐막식을 비롯하여 사전축제, 부대행사, 본 행사로 구성되었다. 사전축제는 2017년 시민참여형 행사로 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신설한 경연 프로그램 「네 마리 백조 페스티벌」, 부대행사는 「대학무용축제」와 학술심포지엄이 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사전축제와 부대행사가 진행되지 못했으나, 2021년에 사전축제를 SNS 플랫폼을 활용해 진행하였고 부대행사는 각 팀의 공연 영상 촬영 후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2022년부터는 다시 사전축제와 부대행사가 오프라인에서 함께 진행 되었다. 본 행사는 경연대상과 함께 「무념무상」, 「명작무 극장」, 「춤판 시리즈」, 「Seoul Dance Lab」의 다양한 기획공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표 4. 2020-2024 서울무용제 지원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서울시 보조금	서울문화재단	합계
2020	165	180	345
2021	80	175	255
2022	345	-	345
2023	390	-	390
2024	351	-	351

(출처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https://opengov.seoul.go.kr/>,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support_list.do?cbldx=992&bcldx=120121&type=재구성)

〈표 4〉는 최근 5년간 서울무용제의 지원금 수혜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서울무용제 역시 서울세계무용축제와 마찬가지로 2020년과 2021년에 서울특별시와 서울문화재단의 지원금을 함께 받았다. 2020년에는 서울특별시 대표공연예술제로 1억 6천 5백만 원,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 지원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자부담금을 제외한 수입 금액이 3억 4천 5백만 원이었다. 2021년에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이 8천만 원으로 줄었고, 서울문화재단의 보조금도 1억 7천 5백만 원으로 줄어 총 2억 5천 5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다. 2022년부터는 서울세계무용축제와 동일하게 서울특별시 서울예술축제 사업에 선정 되어 각각 3억4천 5백만 원, 3억 9천만 원을 지원 받았다. 2024년에도 서울특별시 지역대표공연예술제에 선정되어 3억 5천 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축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무용제가 타 축제와 다른 점은 경연을 중심으로 부수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는 것으로, 경연 형식을 통해 경쟁력 있는 작품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운영한 것이다. 경연에 참가한 단체에 공연제작비와 대관비, 홍보비, 영상촬영, 공연 티켓 등 타 축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여 작품의 질적 향상과 무용계의 관심을 제고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서울문화재단과 같은 지자체의 지원금을 통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성하여 축제의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다.

Ⅲ. 보훈댄스페스티벌의 현황

보훈댄스페스티벌은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의 주최 및 주관으로 열리는 무용예술축제이다. 2015년 발족한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는 보훈과 관련된 유일한 무용예술단체로 보훈관련 소재의 문화예술 연구 및 관련 계기성 행사의 기획 등을 통해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19년에는 단체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인정받아 서울시 전문예술법인 단체로 지정되었다.

1. 보훈댄스페스티벌의 개요

이 축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들의 호국·보훈 의식 및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취지에 따라 매년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개최하고 있다. 2013년 「무담(舞談)-춤 이야기」에서 시작된 보훈댄스페스티벌은 2023년 제10회를 맞이하였다. 경연 중심의 행사를 벗어나 축제의 성격을 강조하고자 2019년에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행사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의 보훈댄스페스티벌이 되었다(보훈댄스페스티벌 사업계획서, 2023). 2013년의 「무담(舞談)-춤 이야기」로부터 발전한 이 축제는 2019년부터 보훈댄스페스티벌이란 명칭을 사용했으며 본 논문에서는 행사의 명칭과 주제를 확고히 정립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행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리한 2019년 이후 행사개요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2019-2023 보훈댄스페스티벌 개요

연도	기간	장소	주최/주관	후원	총 관람객
2019	06.13.-06.23	서울남산국악당 상명아트센터 대신홀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한국무용협회	3,840명
2020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잠정 취소				
2021	06.02.-06.20	국립극장 별오름 국립극장 달오름 국립극장 하늘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무관중 온라인 송출
2022	06.15.-06.26	한국문화의집 Kous 국립극장 하늘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대한무용협회 전주대사습청	2,534명
2023	09.09.-09.17	한국문화의집 Kous 국립극장 하늘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	서울특별시	2,098명

보훈댄스페스티벌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된 2020년 취소된 것을 제외하고 2023년까지 꾸준히 진행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가 남아있던 2021년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전체 행사를 무관중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최 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연 실황을 송출하였다. 2023년도는 극장 대관 문제로 6월에 진행하지 못하고, 유관순 열사의 순국일이 있는 9월에 개최하였다.

관람객 수는 2019년 3,840명, 2021년 온라인 누적 조회수 25,000회에 육박하였으나 2022년 2,534명으로 2019년 대비 1,306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모사업에 미선정,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공연예술계의 활동 위축 등 본 축제 사업 규모의 축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의 관람객 수도 2022년도 대비 436명 줄었으며, 이는 「젊은 예인전」이 3회에서 2회로 축소되었고, 「수상자의 밤」을 분리하는 개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조직구성

보훈댄스페스티벌의 조직은 당연직 이사장, 예술감독, 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집행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축제의 진행계획 수립, 작품의 선정, 조직의 운영 등을 총괄하는 것이며, 기획위원회의 역할은 축제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 집행위원회의 역할은 축제 운영에 대한 심의와 일관성 있는 집행이다.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유기적으로 지원하고 축제 현장에서 실질적인 진행과 행정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개최 기간에는 운영과 공연 진행을 위한 단기인력을 활용한다. 또한 2019년 축제 개편 시 예술감독제를 도입하여 전문예술인이 축제의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그림 1>과 같은 유기적인 조직체계를 통해 원활하고 효과적인 행사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였다.



그림 1. 보훈댄스페스티벌 조직도

(출처: 보훈댄스페스티벌 사업계획서, 2023)

3. 개최장소

<표 5>에 나타난 축제의 개최 장소는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은 상명아트센터 대신홀, 서울 남산국악당,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개최하였고, 2021년은 국립극장 별오름, 달오름, 하늘극장에서 프로그램 별로 개최하였다. 2022년과 2023년은 국립극장 하늘에서 개최하였으며, 부대행사만 한국문화의집 Kous에서 진행하였다. 다음 <표 6>은 각 연도 및 프로그램 별로 공연장과 규모를 정리한 것이다.

표 6. 2019-2023 보훈댄스페스티벌 개최 장소

연도	프로그램	공연장	공연장 규모
2019	부대행사1, 사전축제1	서울 남산국악당	302석
	부대행사2	상명아트센터 대신홀	317석
	사전축제2, 개막공연, 본 행사, 초청공연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609석
2020	코로나19로 취소		
2021	부대행사1, 부대행사2, 사전축제1, 본 행사1	국립극장 별오름	74석
	사전축제2, 개막공연	국립극장 달오름	510석
	본 행사2, 초청공연	국립극장 하늘	627석
2022	부대행사	한국문화의집 Kous	234석
	사전축제, 본 행사, 개막공연, 초청공연	국립극장 하늘	627석
2023	부대행사	한국문화의집 Kous	234석
	사전축제, 개막공연, 본 행사, 폐막공연	국립극장 하늘	627석

<표 6>의 공연장 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을 제외하고 부대행사는 300석 내외의 극장에서 진행하였고, 두 번째 사전축제인「무색(無色)-춤의 빛깔」을 비롯한 개막공연, 본 행사 등은 500석 내외의 극장에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의 외부평가 내용에 행사장소 분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2021년에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국립극장 소극장과 중극장을 대관하여 진행하였으나, 별오름 극장의 협소함과 개선공사로 2022년부터 다시 개최 장소가 분산되었다. 장소의 분산은 축제 개최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나, 장소를 대관하여 개최하는 현실에서 개최 장소와 시기의 일관성을 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4. 프로그램

보훈댄스페스티벌은 부대행사, 사전축제, 개막공연, 본 행사, 폐막공연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매 해 프로그램이 조금씩 개편되어 내용이 달라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훈댄스페스티벌 실적보고서, 2023).

1) 부대행사, 사전축제

보훈댄스페스티벌의 부대행사는 「무작(舞作) 춤을 만든다」와 「젊은 예인전」의 두 공연이 있다. 전자는 순수 무용예술의 대중화와 시민의 문화예술 향수권 신장을 위해 비전문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기획된 시민참여형 공연으로 비전문 예술인들이 지원을 통해 전문극장시설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나 2022년과 2023년도에는 시행되지 않았다. 후자는 무대 공연기회가 부족한 30대 젊은 예술인들을 위한 공연으로 무용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 예술인들의 역량의 초석을 굳힐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는 공연이다.

사전축제도 「Best of Best」와 「무색(無色)-춤의 빛깔」의 두 공연이 있다. 전자는 국제콩쿠르나 국내의 위상 있는 콩쿠르에서 예술요원 병역특례자로 선정된 남성 무용수들을 위한 공연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업군에서 남성 무용수의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는 의미를 가지나 2022년과 2023년엔 진행되지 않았다. 후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견무용가들을 위한 공연으로 숙련된 기량과 예술성을 선보이는데 목적이 있다.

2) 개막공연, 본 행사, 폐막행사

이 축제의 개막공연은 「우리춤 전시회」로 민간 무용단을 작품을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민간 예술단의 우수 레퍼토리를 활성화하고 대중들이 완성도 높은 다양한 무용작품을 지속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행사는 2023년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보훈무용제(구 국제신인작가전)」이다. 젊은 안무가들이 장르를 불문하고 호국과 보훈이라는 주제로 창작을 선보이는 경연 형식의 무대이다. 서류심사와 오디션의 2단계 선발과정을 거쳐 선정된 안무자들에게 창작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젊은 무용수들의 춤사위를 통한 인재 발굴 및 양성, 예술성 고취, 호국정신의 고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폐막행사인 「세월을 가진 춤을 추다(구, 당대(當代)의 춤)」은 2023년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2022년까지 진행하였던 초청공연을 폐막행사로 개편한 것이다. 문화재 보유자와 대통령상 수상자 등 한 평생 춤 외길을 걸어온 60세 이상의 우리 시대 최고 원로 무용가들의 공연으로 구성한다.

5. 사업비

보훈댄스페스티벌은 국·공립 기관이나 지자체 주도의 축제가 아닌 민간 예술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로 재원의 확보는 축제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표 7>은 수입예산 편성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7. 2019-2023 보훈댄스페스티벌 수입 예산

(단위: 천원)

연도	보조금	자체부담금	합계
2019	20,000	37,000	57,000
2020		코로나19로 취소	
2021	63,000	10,100	73,100
2022	-	55,000	55,000
2023	50,000	11,000	61,000

(출처 : 보훈댄스페스티벌 실적보고서 2019, 2021, 2022, 2023 재구성)

〈표 7〉을 살펴보면 2019년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한민국공연예술제에서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자체부담금 3천 7백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천 7백만 원으로, 2021년은 서울특별시 민간축제지원육성사업 6천 3백만 원의 지원비를 받아 자체부담금을 포함 7천 3백 십만 원으로, 2022년은 자체부담금 100%로 총사업비는 5천 5백만 원으로 개최하였다. 그리고 2023년에 서울특별시 민간축제지원육성사업 보조금 5천만 원과 자체부담금을 포함하여 총 6천1백만 원의 규모로 개최하였다. 자체부담금은 통상 총사업비의 10% 이상 책정하여야 하는데, 주로 주최 협회의 회비, 기부금, 매표수입, 개인 후원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표 7〉에 볼 수 있듯 국고와 지자체 보조금 지원 여부와 금액은 축제의 전체 사업비의 마련과 관련 있고, 따라서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가 안정적인 축제의 운영에 관련이 있음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받던 단일 보조금의 의존도를 낮추고 여러 기관과 지자체의 보조금, 기업협찬 등으로 다각화해 안정적인 축제 운영 재원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보훈댄스페스티벌의 SWOT 분석

보훈댄스페스티벌의 사업계획서와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SWOT 분석을 하였으며,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은 〈표 8〉과 같다.

표 8. 보훈댄스페스티벌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1. 서울특별시라는 지리적 이점 2. 축제의 명확한 상징성(호국 및 보훈 주제)	1. 축제프로그램의 독창성 결여 2. 홍보마케팅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1. 유사기간 타 공연예술축제의 부재 2. 서울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 증가	1. 외부적 요인의 위협요소 (사건사고, 재해, 전염병 등) 2. 재원조성에서의 불안정성

1. 강점(Strength)

이 축제의 강점은 개최지의 지리적 이점과 축제의 상징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개최지인 서울특별시는 수도이자 사회, 문화, 교육, 경제의 중심지로 약 90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으며,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다양한 대중 교통수단이 발달해 교통이 편리하며 장소의 이동이 용이하다.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이 공연장에 접근하기에도 수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축제의 주제인 '보훈'은 타 무용예술축제와 차별되는 고유성을 가진다. 페스티벌의 명칭도 '보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축제의 목적인 보훈의 가치를 상기하도록 하였으며, 축제 시기도 호국·보훈의 달에 개최하여 주제의 고유성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독자적 주제의 무용예술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약점(Weakness)

한편, 약점은 주제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독창성과 홍보마케팅의 결여이다. 부대행사, 사전축제, 개막공연, 본행사, 폐막공연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예술 단체나 개인을 초청하여 공연하는 방식으로 타 축제와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축제의 부대프로그램은 축제의 사전홍보와 인지도 상승, 축제의 활성화, 일반관객의 개발, 축제의 예술적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가진다(윤성진, 2009). 그러나 이 축제는 '보훈'이라는 주제의 고유성에도 불구하고 연관 프로그램의 구성이 부족하여, 주제와 부합하고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축제의 홍보마케팅은 축제 프로그램별로 짧은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행사 개최 전 홈페이지, SNS,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하는데 머무르고 있고, 오프라인 홍보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또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과 축제 관객 개발에도 진행된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축제의 메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홍보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홍보대상과 주요 관객에 대한 인구학적 정보를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적인 관객 개발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기회(Opportunity)

이 축제의 기회는 개최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주제를 부각하고자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개최하고 있다. 비슷한 기간에 개최되는 대한민국발레축제를 제외하면 무용예술 분야의 축제는 대부분 5월, 9월, 10월에 개최하고 있어 이 축제가 6월에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축제 주제의 강화와 관객 활성화에 있어 기회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대한민국발레축제는 발레 장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개최 장소가 다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관람률 통계 중 서울시민의 관람률을 살펴보면 2014년 77.5%, 2019년 88%, 2020년과 2021년 40.4%, 2022년 다시 62.1%이다. 코로나19로 일시적 감소를 보인 시기를 지나 이전의 추이로 회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간 서울시민의 축제관람 여부에 대한 통계에서도 2010년 36.6%에서 2019년 56.8%까지 관람 경험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주5일제와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통해 국민의 여가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문화예술에 대한 직접적 향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이는 무용예술축제의 잠재적 관객의 확대에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이 축제를 호국보훈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시기에 개최한다면 무용예술축제로 정착하였을 때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위협(Threat)

이 축제의 위협은 외부적 요인의 위협 요소와 자원 조성에서의 불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축제 위기상황의 유형 중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건·사고가 있으며, 국내의 대형사고, 전염병의 발발, 날씨에 의한 자연재해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이란희, 2014). 2018년 태풍 콩레이와 2019년 돼지열병으로 다수의 축제가 취소되었고,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축제를 비롯한 많은 문화행사가 취소된 경우이다. 이것은 축제 외부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상황으로 예측이 불가능하며 대처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 축제의 경우도 2020년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되었으며, 차후 이런 위협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위기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무용예술축제는 ‘무용예술’이 중심이 되는 행사로 주체의 성격상 재정의 자생력이 약하고 공공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 축제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아 축제를 운영했으며, <표 7>에 나타나듯 공모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2022년에는 사업규모가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관이 주도하는 축제가 아닌 이상 사업비 예산수립에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불확실성의 감소는 이 축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큰 위협요인이라 할 수 있다.

5. SWOT 전략

보훈댄스페스티벌의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을 바탕으로 강점을 활용하고 기회를 활용하는 SO, 내부 강점을 극대화하여 외부 위협을 최소화하는 ST, 약점을 극복하여 기회를 활용하는 WO, 위협을 완화하고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WT 전략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보훈댄스페스티벌 SWOT 전략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축제의 주제를 반영한 부대프로그램의 개발	구체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관객개발
위협(Threat)	포스트코로나시대와 더불어 외부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운영방안 수립	안정적인 재원조성

첫째, SO전략으로 ‘보훈’이라는 축제 주제를 반영한 부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독자적인 무용예술축제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둘째, ST전략으로 자연재해, 사건 사고 등 외부 위협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셋째, WO전략으로 명확한 목표관객을 설정 후 구체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지역 관객을 개발하는 것이다. 넷째, WT전략으로 기업 또는 기관과의 협력과 후원, 전략적인 매표 등을 통해 축제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보훈댄스페스티벌이라는 사례의 성공적인 무용예술축제로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3년 연속 3억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서울세계무용축제와 서울무용제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무용예술축제인 두 사례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축제의 뚜렷한 목적성이다. 서울세계무용축제는 국제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간 공동제작, 합작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였다. 서울무용제는 경연에 초점을 맞추어 대한민국 무용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무용계의 양적 및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렇듯 두 축제는 축제가 가진 목적과 부합하여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축제가 가진 상징성과 독자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뚜렷한 목적성과 더불어 전시회, 학술행사, 포럼 등의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기획하여 다양성과 축제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이다. 두 축제 모두 <표 2>와 <표 4>에서 알 수 있듯 지자체, 관의 지원을 통해 축

제가 운영되고 있다. 무용예술은 자생적인 재원확보에 취약하므로 예산의 수립에 있어 지원정책에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가진다. 두 축제는 매년 서울특별시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3억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의 수립에 있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축제의 지속성이다. 2024년 현재 서울세계무용축제는 27회의 행사 개최를 앞두고 있고, 서울무용제 역시 45회의 행사를 준비 중이다. 20여년 이상의 행사 개최를 통해 축제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비슷한 시기의 유사한 장소에서 진행하여 일회성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각 축제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표적인 무용예술축제 사례의 시사점과 더불어 보훈댄스페스티벌의 사업 및 실적보고서의 내용을 SWOT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축제의 목적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보훈댄스페스티벌은 축제 주제의 고유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축제와 유사한 단순 공연 프로그램 구성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형식적 구성을 넘어 축제의 목적이 반영되도록 기획할 필요가 있다. '보훈'이라는 주제와 예술성을 결합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의 개최, '호국, 보훈'을 주제로 창작한 예술가와의 만남, 서울 시내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장소를 소개하는 전시회 개최 등 축제의 목적과 주제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축제의 고유성을 관람객들에게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홍보방법의 구체화, 고도화하여야 한다. 공연예술 축제에서 잠재적 문화예술 향유층을 관객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예술마케팅이 필요하다(한승연, 2010). 이 축제는 현재 온라인 SNS 홍보물 게시와 매체 보도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나,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과 같은 축제의 주요 고객에 대한 파악과 효과적인 홍보의 단계적 전개에 대한 전략이 미흡하다. 또한 오프라인 홍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행사장 주변에 배너를 설치하여 모객하거나 축제 이미지에 부합하는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활용하는 방법 등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축제 전, 중, 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전개하여 충성도 높은 관객으로 개발해야 한다.

셋째, 재원 조성의 안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상업적 성격이 취약한 무용예술축제는 안정적 재정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축제의 운영과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관 주도의 행사가 아닌 이상 예산의 불안정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 기업과의 협력 및 기부금 유치, 할인 패키지 구성을 통한 매표 활성화, 자체부담금 등 재원조성의 다변화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4년이라는 비교적 한정된 기간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나 보훈댄스페스티벌 및 유사한 상황에 처한 축제의 발전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후행연구로 서울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 축제의 고유성을 부각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례연구를 하고 축적된 사례를 메타 연구하여 축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반적 그리고 개별적 자료가 축적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공종빈(2020). 공연예술축제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 SCF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지(2009). 한국의 무용예술축제 현황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센터(2024.4.24.)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https://stat.mcst.go.kr/portal/subject/subject01/STBL-101425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센터(2024.4.24.)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지난 1년간 축제 관람여부. <https://stat.mcst.go.kr/portal/subject/subject01/STBL-1014259>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센터(2024.4.24.)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활동이 삶의 필수적 요건인지 여부. <https://stat.mcst.go.kr/portal/subject/subject01/STBL-1014264>
- 배준용(2018). 공연예술축제 사례분석을 통한 무용축제의 새로운 유형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2019). 보훈댄스페스티벌 사업계획서.
-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2021). 보훈댄스페스티벌 사업계획서.
-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2022). 보훈댄스페스티벌 사업계획서.
-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2023). 보훈댄스페스티벌 사업계획서.
-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2019). 보훈댄스페스티벌 실적보고서.
-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2021). 보훈댄스페스티벌 실적보고서.
-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2022). 보훈댄스페스티벌 실적보고서.
-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2023). 보훈댄스페스티벌 실적보고서.
- 서울무용제 웹사이트(2024.5.20.) <https://sdf1979.koreadanceassociation.org/>
- 서울문화재단 웹사이트(2024.5.30.)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support_list.do?cbIdx=992&bcIdx=120121&type=
- 서울세계무용축제 웹사이트(2024.4.20.) <http://www.sidance.org/2023/main.php>
- 서울시청 서울정보소통광장(2024.5.30.) <https://opengov.seoul.go.kr/>
- 안귀호(2002). 한국 공연예술축제의 실태분석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무용공연예술축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성진(2009). 국내 공연예술축제의 부대프로그램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란희(2014). 공연예술축제의 위기유형 및 위기관리 연구 : 하이서울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 최윤희(2014). 사회 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한 국내 무용계의 창작활동 분석 : 서울세계무용축제와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사례를 바탕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혜경(2023). 한국창작무용의 시기별 특성 분석에 따른 경향 연구 : 서울무용제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정보경영평가(2023). 서울시 축제 지원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한승연(2010). 공연예술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제3회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Case Study on Development Strategies for Dance Arts Festival: Focusing on the Bohun Dance Festival

Youngsoo Yoo* Bohun Dance Association

This study explores strategies for establishing the Bohun Dance Festival as a successful dance arts festival by analyzing the Seoul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and Seoul Dance Festival, which received over 300 million won in subsidies from Seoul for three consecutive years. A SWOT analysis of these festivals' reports yielded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Bohun Dance Festival programs should reflect the festival's purpose. Currently, the festival's simple performance programs do not fully reflect its unique purpose. Developing content that combines the 'veterans' theme with artistic expression is essential. This includes hosting symposiums, meetings with artists, and exhibitions that highlight historical sites and memorial places honoring war heroes, offering a unique festival experience. Second, promotion methods need enhancement. The festival's current online promotions via social media and media reports lack effective strategies for key audiences such as veterans and their families. Offline promotions, such as installing event venue banners and appointing promotional ambassadors, should be incorporated. A systematic marketing approach before, during, and after the festival is necessary to build a loyal audience. Third, funding stability is crucial. Dance arts festivals require a stable financial foundation due to their weak commercial nature. Diversifying funding sources through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y collaborations, corporate partnerships, donations, and discount ticket packages is essential. These findings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the 'Bohun Dance Festival's development and stable operation and similar festivals. Further research should focus on case studies of various Seoul festivals to accumulate data for efficient festival operations.

Key words : Bohun Dance Festival, dance arts festival, program development, SWOT analysis

논문투고일: 2024.06.08

논문심사일: 2024.07.07

심사완료일: 2024.07.18

* Chairman, Bohun Dance Association